



# 교육연합신문



2026년 4월 22일 (수) 제442호 (창간 2009년 1월 22일)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학교탐방-무안초등학교 ▶7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학교가 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초등학교는 오랜 시간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전통 있는 학교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충분히...



**순천삼산초, 꿈과 미래 역량 키운다 ▶13면**

순천삼산초등학교(교장 조계정)는 지난 4월 9일 3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급별로 다양한 직업인이 초청되어 강연과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교탐방-부산체육중·고교 ▶16면**

“이제 전문체육은 메달을 따기 위한 교육을 넘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2026년, 학교체육이 근본적인 전환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윤강 교장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 교육부, 추경 4조 8000억 교부금 신속 투입

### 공공요금·취약계층 지원 확대... 선심성·불요불급 예산 집행 차단 주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약 4조 800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이라는 취지에 맞

게 사용되도록 주요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냉난방비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학교 공공요금 부담과 학생 통학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고유가 상황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이 민생 안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나 불요불급한 홍보·연수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 통과하는 즉시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 현장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전남교육청, 2030교실 252개 확대... 대전환 박차

###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 글로벌 전남 교육 본격화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119개의 2030교실 추가 선정을 마무리하고 ‘학생 주도성 수업’을 중심으로 전남 수업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14일 밝혔다.

2026학년도에 새롭게 구축되는 2030교실은 유아 30개, 초등 42개, 중등 35개, AI실 12개로 총 119개다. 올해는 교육현장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당초 목표인 110개보다 많은 교실을 선정했다.

이로써 전남에는 지난해 조성된 133개 교실에 더해, 총 252개 2030교실이 운영되며, 각 학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수업이 다채롭게 펼쳐지게 된다. 전남교육이 만들어 가는 ‘2030교실’의 의미와 성과는 숫자 1부터 6까지로 살펴보면 한층 분명해진다.



1) 1번 역점과제 - 2030교실은 2026학년도 전남교육의 1번 역점과제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을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내 252개의 2030교실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전남 교사 411명이 함께 준비한 59시간의 미래수업 대경연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수업 대전환의 실천 기반으로 자리 잡으며, ‘수업’을 교육변화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2가지 교실 모델 - 2030교실은 ‘시공간 제한이 없는 교실’과 ‘언어 장벽 없는 교실’ 두 모델을 지향한다. 실제, 화순오성초는 약 1만 7,000km 떨어진 남극 장보고 기지와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고, 여담교에서는 AI로 구현한 다산정약옹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을 운영했다. 전교생의

20%가 외국 국적인 삼호서초에서는 12개국 출신 학생들이 AI기반 실시간 번역기술을 활용해, 언어의 장벽 없는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제약 없는 배움’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전남에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수준 높은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 3가지 원동력 - 2030교실의 원동력은 현장 교사들의 열정이 이끄는 핵심 주체다. 이들의 교육철학은 2030교실의 수업브랜드로 발전하고, ‘전남 수업 맞닥 가이드 맵’에 소개되어 더 많은 교사와 공유되고 있다. 또, 2030수업연구회를 통해 수업을 설계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 문화를 만들어간다.

4) 4개 대륙을 넘나드는 수업 - 2030교실은 국내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53개 팀 267명의 교사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4개 대륙 12개국과 공동수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업 역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5) 5주간의 수업축제 - 지난해 11월 2030교실을 중심으로 5주간의 수업 축제가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130개의 릴레이 수업 공개가 이뤄졌고, 교사들은 수업을 참관하며 교실 속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교실 속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300여 명이 참여한 ‘2030수업하마당’에서는 수업 시연을 비롯해 콘퍼런스, 토크콘서트, 체험 부스가 다채롭게 마련돼 2030교실 내외연의 확장을 꾀했다.

6) 6가지 약속 - 전남교육청은 2030교실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약속을 이어간다. 수업을 먼저 고민하고, 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형화된 틀을 깨는 변화를 추진한다. 전남교육청은 이 여섯 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전남 수업 대전환을 한 걸음씩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2030교실은 수업 변화의 산실이자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식 기자 2580news@daum.net

## “백양에서 북항까지, 생명의 강을 다시 살린다”

### 박형준 부산시장,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 정책 브리핑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월 1일 오후 15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2) 22층 라운지에서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 정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브리핑은 동천 일원 등 사업 대상지를 직접 둘러보는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천의 혁신 방향과 거점별 복원 전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수유입을 통한 수질 개선 방식을 벗어나 지하 담수를 유지용수로 활용, 동천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동천을 도시 성장과 생태를 잇는 생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개통된 만덕~센텀 도심도 구간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동천 지역을 통과하는 사상~해운대 도심도 구간에서도 상당량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함을 기술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

사상~해운대 구간에서 확인된 규모는 하루에 약 3.5만톤 규모이

며, 부산형 급행철도(이하 BuTX)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천을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하루 약 3.9만톤 수준의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다.

부산시는 이 담수를 바탕으로

동천을 ▲생명의 강 ▲문화의 강 ▲번영의 강으로 조성한다.

성지곡수원지부터 북항까지 물길을 다시 살리고, 복개된 하천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며, 숲길과 산책로 등 생태축을 새로 조성한다.

먼저 성지곡수원지는 재개발 예정인 시립 어린이동물원과 연계해 생태·교육·체험 중심의 ‘어린이생태 체험 교육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이어 부산시민공원은 사상~해운대 도심도 및 BuTX 노선에서 확보한 지하수를 시민공원으로 끌어와, 부전천을 거쳐 동천으로 흘러보내는 지하수 투입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

박형준 시장은 “동천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도시 속 생명의 강을 되찾고, 동천 수계를 복원해 부산 시민의 과거의 영광과 자부심이 미래의 영광과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성민 기자 bse@

조달청 우수제품

성능 인증

GS인증 1등급

녹색기술 인증

환경표지 인증

산업융합신제품

우수발명품

### APEC 2025 정상회의장 LED 전광판 구축 기업

실내 LED 전광판 | 옥외 LED 전광판 | LED 전자현수막 | 스탠드 LED 전광판

# 전국 초·중·고 구축 건수 1위

## 주식회사 케이시스

국내 유일 미세피치 LED 전광판 제조 기업 | 케이시스 스마트 자동화 공장

세일고등학교 2층 강당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대강당

여의도고등학교 입구

북원여자고등학교 입구

용인 대치고등학교 옥외

장성백암중학교 옥외

망미초등학교 본관 입구

사송초등학교 본관 입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

학산여자고등학교 강당

대전대성여자중학교 실내 스탠드 전광판

사직여자고등학교 LED배너

국내 최초 미세피치 LED 전광판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공공기관·관공서·학교 '전국 1,600건 이상 구축'

140종 이상의 빛나는 '수상·인증·특허' 보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글로벌 컨트롤러 '노바스타 공식 전략기술 파트너'

국무총리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정부 조달청장 표창

산업융합선도 기업 표창

녹색인증 유공포상

[전국 및 글로벌 지사·공장·물류]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17 11케이타워 1F~6F

광주 | 광주 북구 침산로208번길 43-10 마루힐BC지식산업센터 A동 1301-B호

공 정 |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9 (모라동) 백양스마트빌 B1, 1F, 5F, 6F

서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평촌 금강센터로 IT타워 411호

제 주 | 제주 서문로 33

부산 물류센터 | 부산 남구 문현로 13-1 케이시스 물류창고

서울 물류센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평촌 금강센터로 IT타워 B110호

www.ksys.co.kr

**제품문의**

## 1600 - 6187

# 인천교육청,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내실화 박차

## 교원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 위해 역량 강화 연수 및 운영지원단 협의회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진로지도 역량 강화 연수' 및 '운영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난 4월 14일과 16일, 관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활용 진로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원격과 집합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격 연수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초등 진로 탐색 ▲사이버진로교육원 콘텐츠 활용법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지도 역량 강화 등을 다뤘으며, 이어진 집합 연수에서는 ▲AI 기반 진로 설계 및 교과 연계 탐구 보고서 지도법 ▲진로

로드맵 활용 수업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서부결재로진로센터에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콘텐츠 운영지원단' 협

의회를 개최했다. 운영지원단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와 협의회가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에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와 협의회가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에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와 협의회가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에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와 협의회가 교사들의 진로지도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에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양평교육지원청,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냉·난방기 종합세척 사업 조기 추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은 4월 17일부터 2주간 관내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16개교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세척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 시기를 앞당겨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예방 및 기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기본

세척에서 종합세척으로 예산을 확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척 대상은 노출형 189대와 천장형 421대 등 총 610대로, 냉·난방기 그릴과 필터, 프린트 패널, 드레인판, 송풍팬 등을 분해해 고압세척과 약품 소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올해 사업을 지난해보다 약 3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미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기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社說

### 2026년의 교정, '기술의 속도'보다 '교육의 깊이'를 고민할 때

2026년의 봄이 교정에 당도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새 학기의 설렘 속에 올해는 유독 목격할 시대적 과제가 우리 교육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의 인프라가 되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가 교육 현장을 휩쓰는 지금, 교육 당국은 단순한 정책 집행자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을 설계하는 '문명의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생태계의 질적 재편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위기가 아닌, 개별 맞춤형 교육 절호의 기회로 발전시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거대 담론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함몰되지 않고 오롯이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수업의 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당국의 최우선 과제다.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 상호 존중이라는 하나의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꽃임을 증명해야 한다.

법과 규정으로 통제하는 차가운 행정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따뜻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당장 눈앞의 성과나 수치에 연연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미래 세대에게 빛을 지우는 일이다. 2026년 새 학기, 교육 당국은 변화하는 기술에 기민하게 대응하되 교육의 본질인 '사람다움'이라는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교실의 창을 여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불안이 아닌 희망이 맺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육 당국에 부여된 가장 엄중한 책무다.

## 구본희 반려詩選

### 김치전에 막걸리

부침가득에  
감오진어와 김치를  
장게 썰어 놓고  
휘휘 저어  
올리브기름에 바삭 지진 전.

막걸리는 시원히 얼얼하고  
웃음은 잔 뜰에서 번진다.

평범한 일상은  
이젠 내 삶의 지감,  
행복은 소리 없이  
내 옆에 둘러앉는다.

노란 양은 잔에  
막걸리 따라  
김사감과 저역 대신  
하루를 마신다.

비온 뒤 소래바다,  
전혀놓에 열풍 불리고  
찬물 사이 스며든 바람에도  
막북 뜰 뒤는 버리고 선다.

그래도 오늘은  
순경이 한결 부드럽다.



■ 구본희  
◇ 前인천국제고등학교 교장

## 함평골프고 박하영 학생, KLPGA 준회원 자격 취득

### 프로 무대 첫 관문 돌파... 학업·골프 훈련 병행하며 안정적 성장 이어가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3학년 박하영 학생이 지난 4월 1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준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프로 무대 진입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돌파했다.



박하영 학생은 중학교 시절 취미로 골프를 접한 이후, 점차 선수의 길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늦은 출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연습과 자기관리를 이어가며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다.

재학 중에는 뉴질랜드에서 1년간의 유학을 통해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경기 운영 능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한 뒤에는 한층 성숙해진 경기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훈련에 더욱 매진했다.

함평골프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업과 골프 훈련을 성실히 병행하며 안정적인 성장 과정을 이어갔다. 정규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동시에 학교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전문 지도 아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켰으며, 자기주도적인 훈련 태도를 바탕으로 실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왔다.

이러한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박하영 학생은 2026년 KLPGA 준회원 자격을 취득(2026. 4. 2)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학생선수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하영 학생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훈련과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업과 훈련에 더욱 충실히 임하며 정회원 자격 취득과 더 높은 무대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 교사와 산학겸임교사(프로골퍼)는 "박하영 학생은 학업과 운동을 성실히 병행하며 꾸준히 성장해 온 모범적인 학생선수"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석범 기자 2580news@daum.net

##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편집인 한승균  
우 135-95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306호(충무로 47가)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서울본부 1899-0954  
인천본부 032-429-1000 충북지사 043-292-0779 영남본부 054-273-3336  
대전지사 1666-0536 울산지사 052-276-0904 호남본부 0505-629-3366  
전북지사 063-226-0119 부산지사 051-711-1444 제주지사 1522-1160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우선구매대상 "우수발명품"  
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최우수상"



# XingQ Table

조달청 G2B 식별번호  
24823144 / 24860039

## 창의사고력 향상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 창의사고력 향상 콘텐츠 48종
- 창의사고력 향상 테스트
- 안전교육
- 사회성 발달
- 메타인지력, 문제해결력 향상



### [ 설치 적용 분야 ]

- 초등 돌봄 교실, 초등 방과후 교실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키즈 카페, 체험관, 교육관, 과학관, 공공기관 멀티미디어 놀이 학습



# 경남대 AI·SW융합전문대학원, AX 인재 양성 강화

## 석·박사 과정 30명 3D 로봇·스마트팩토리 현장 체험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직접 확인'

경남대학교 AI·SW융합전문대학원 원우회(회장 오양환)는 4월 15일 경남 AX 선도기업 CTR을 방문해 석·박사 과정생 30명이 참여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제조 현장의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AI 기반 생산혁신과 지능형 공장 운영 전략을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생산라인과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AI 분석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CTR(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은 창원 공장에 3D 로봇과 DX 기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해 다품종·소량 생산에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공정 및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태블릿 기반 현장 데이터 입력 시스템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CTR 창원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은 3D 로봇 111대를 18개 생산라인에 배치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기존 4-8시간이 소요되던 라인 교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하나의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설비 점검 및 수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휴먼에러를 줄이고, 설비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 이후 CTR은

이들 통해 기존 4-8시간이 소요되던 라인 교체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하나의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설비 점검 및 수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휴먼에러를 줄이고, 설비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팩토리 전환 이후 CTR은

MOM(제조운영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생산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제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경남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주관대학으로, 2024년 AI·SW융합전문대학원을 신설해 재직자 대상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난현 경남지능화혁신사업단장은 "CDO-LAB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현장에서 AI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실전형 고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양환 원우회장은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AX 시대 인재의 경쟁력"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전형 교육을 통해 경남 제조업의 AX 전환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요규 기자 hog@

# 경기학생교육원, 학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개최

## 경기도 학교 42개교 학생자치회 학생 등 1,238명 대상 12월까지 총 22기 진행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지미숙)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를 주제로 '학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경기도 내 초·중등 42개교 학생자치회 소속 및 리더십 교육 희망 학생 1,238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22기에 걸쳐 진행된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캠프는 ▲도움닫기 프로그램(리더십 교육) ▲도약하기 프로그램(리더십 탐험대) ▲비상하기 프로그램(토의·토론 활동) ▲안전리더십(심폐소생술, 완강기·무동력체협) ▲협력력 리더십(두물머리 탐방)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인성을 함양하고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이번 과정은 스스로 참여

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 자치 문화를 배우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 "폐교를 지역 교육·문화·체육 거점으로"

## 전남교육청, '폐교 활용 대전환' 본격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월11일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체육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폐교재산 활용 대전환'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 폐교를 지역사회의 공유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해 지역 활력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폐교를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화대초 - 활못길 체력장과 요가·탁구장 등 건강 체험 공간 ▲(구)문평남초 - 각종 교육기자재 학교 공유·교육 물품 공유지원센터 ▲(구)홍농 초동명보교장 - 주민을 위한 파크골프장과 워터 조성 등이다.

특히, (구)봉덕초정사분교장은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플랫폼 '평사열린마루'로, (구)동면 초경북분교장은 평생교육과 체육·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함께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역 맞춤형 활용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14개 폐교를 마을회와 지자체에 무상 대부해 공동이용시설, 소득증대시설, 공공형 돌봄·항공 산업 및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13개 폐교에는 생활체육시설, 산책로 및 컴퓨터 등을 조성하여 자체 활용 중이다. 이는 폐교를 지역 성장 거

점으로 전환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폐교 활용과 함께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2026년에는 석면 해체와 노후건물 철거 등 안전 정비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폐교 활용 사업을 지속 확대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문화 공간을 발굴하고, 지역민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국 행정국장은 "폐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라며 "안전 확보와 활용을 병행해 지역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상식 기자 2580news@daum.net

# 기고

## 경험이 경쟁력이다... 우리 아이 교육,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

임시 중심 교육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점수와 등급,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해 온 결과, 아이들은 많은 지식을 갖추었지만 정작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식은 넘치지만 질문은 줄어들고 있다. 정답을 찾는 데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데는 서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제 교육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 그리고 그 경험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다.

### ■ 교실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교육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적응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역량은 단순한 교실 수업만으로는 길러지기 어렵다. 실제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단순한 '여학연수'를 넘어,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또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문화 속에서 배우는 교육은 교과서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명문 사립고에서 운영되는 글로벌 리더십 캠프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

학생들은 3주 동안 현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가족사 생활을 하며, 미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한다. 이 과정에서 얻어는 '과목'이 아닌 '도구'가 되고, 학습은 '시험'이 아닌 '경험'으로 전환된다.

### ■ '짧지만 깊은 변화'가 만들어 내는 성장

일각에서는 "3주라는 시간이 과연 충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경험의 밀도'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난 순간,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처음에는 서툴고 두렵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간다.

낯선 언어로 말을 걸고, 다른 문화 속에서 관계를 맺고, 스스

로 하루를 계획하며 생활하는 경험은 아이에게 강한 자기 효능감을 심어준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단순한 학습 동기를 넘어, 인생 전반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또래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 ■ 학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방향을 바꾼다

결국 교육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변화가 빠른 사회일수록, 정해진 길보다 스스로 길을 찾는 힘이 더욱 요구된다.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스스로 꿈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학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호를 넘어 '기회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 경험이 스펙을 넘어 '자산'이 되는 시대

이제 경험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입시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단순한 성적보다 과정과 성장, 그리고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닌, 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3주라는 시간은 짧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얻는 깨달음과 변화는 아이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흔적으로 남는다.



김미혜  
◇ 국제전문교사  
◇ 위스콘신대학교 한국입학홍보처 이사  
◇ UHR Korea대표

# 전남 화순고, 생명 존중 가치 되새겨

## '1-month, 1-event' 행사로 세월호 12주기 추모 캠페인

전남 화순고등학교(교장 김주봉)는 지난 4월 16일 점심시간, 교내 급식실 앞 공간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학생과 교직원 이 함께하는 '추모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화순고의 특색 교육활동인 '1-month, 1-event' 4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직접 추모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와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는 취지다.

이날 화순고 교정은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물결로 가득 찼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각자 준비한 노란색 소지품이나 아이티를 착용하고 등교하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학교 측은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며 추모의 뜻을 격려했다.

특히, 급식실 앞마당에서는 '세

월호 삼행시 짓기' 활동이 진행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세·월·호' 세 글자에 형생자를 향한 미안함과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한 다짐을 진지하게 담아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이 작성한 "세상이 멈춘 듯한 그날을 기억합니다/ 월마다 되새기며 잊지 않겠습니다/ 호소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이라는 삼행시 구절은 현장에 모인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작품들은 일주일간 교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시간이 흐르며 세월호 참사를 잊고 지내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기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는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추진한 담당 교사는 "12년 전의 아픔이 잊히지 않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든 점이 뜻깊다"며, "점심시간의 짧은 참여였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추모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마음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영식 기자 2580news@daum.net

# 김홍제의 목요칼럼

## 벚꽃처럼 피고 목련처럼 견디는 삶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이며 결국 가장 찬란한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의 과정이다."

올해 벚꽃과 목련과 개나리가 함께 피는 진경풍을 구경했다. 봄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에 환한 기쁨이 수액처럼 스며든다. 벚꽃은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가장 빠르게 흩날린다. 순간의 아름다움, 영원하지 않기에 더 눈부시고 ভাল할 수 없기에 더 아름답다. 젊은 시절 소나기 같았던 첫 사랑을 닮았다. 목련은 하늘로 고개를 들고 단정하게 피어오른다. 말없이 품고 있던 마음을 꺼내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서든 쉽게 피어나 언덕을 물들이는 개나리는 밝고 따뜻하다. 봄꽃은 각자의 언어로 말을 건넨다. 추운 겨울에 수고 많았다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 여기를 사랑하라고. 붉은 마음이 다시 피어오르는 계절이다. 식물들은 그 자리에 머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쁘게 하루를 산다. 식물들은 느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분명한 방향을 잃지 않는다.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다.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을 조

울한다. 조금이라도 과하지도 없다. 묵묵히 자신의 리듬을 지켜갈 뿐이다. '조용한 지속성'은 현대인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벚꽃은 한순간 세상을 환하게 밝히지만 화려함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벚꽃은 그 찰나를 위해 긴 시간을 준비해 왔다. 겨울의 차가운 시간을 견디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히 준비했고 때가 되었을 때 말없이 피어났다. 그리고 미련 없이 흩날린다. 그 모습은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목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크고 단정한 꽃잎을 하늘로 열어 올리는 목련은 화려함보다는 고요한 품위를 지닌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형태를 오래 유지하며 묵직한 존재감으로 봄을 채운다. 목련은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결코 늦어지는 경우도 없다.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방식으로 피어난다. 벚꽃의 찰나와 목련의 깊이는 우열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속도와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신라대, 대한상의 '직업계고 직무교육기관' 선정

### 학년별 맞춤형 보안검색 분야 직무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본격 운영

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 분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어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먼저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보안검색 직무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항공보안 및 시설보안에 대한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보안검색 장비 활용, 위험물 판별, 상황 대응 능력 등 직무 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습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학년 대상으로는 '철단 보안검색 요원 양성과정'을 운영해 취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항공보안과 일반경비 분야의 전문 교육을 포함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 양

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한국공항공보안, 인천국제공항보안, 부산항 보안공사 등 보안 관련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과정은 관련 자격 및 이수증 취득과 연계되어 공항, 항만, 국가중요시설 등 보안 분야 취업에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라대는 이미 민간경비 교육 전 과정(일반·특수경비, 경비지도사)을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안검색 실습장, X-ray 검색장비, 금속탐지기, CCTV 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용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라대 김순석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기관 선정은 보안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라대학교는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요규 기자 hog@**

# 제1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자 모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월 18일까지 예선 접수... 청소년 공공정책 제안 발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청소년이 일상 속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7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예선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사업회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이 일상에서 발견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공공정책을 제안·실현할 과정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 문화재 안내판 QR코드 개선'은 문화재청 정책에 반영됐다. 제16회 대회에서 제안된 '등골길 안전 방안'은 광주광역시 학교 인근 지역의 과속 방지턱 설치로 이어졌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4~8명으로 팀을 구성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회참여 활동 내용을 담은 원고를 사업회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은 오는 11월 7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한다.

사업회는 대회 개요와 사회참여 방법론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5월 중 사업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오 이사장은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5년 6월 개관한 서울 용산구 소재 공간으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 등 민주주의의 역사 현장을 보존·활용해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기념관은 시민강좌,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유연 기자 lyy@**

# "지역 국가유산 기반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 확대"

### 서울중부교육지원청·백범김구기념관, 국가유산 연계 체험학습 확대 맞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4월 17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과 학생 국가유산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추진됐으며, 국가유산과 연계한 협력적 역사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 국가유산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준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시관 탐방과 현장 체험을 통해 역사 지식

을 습득하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체감하는 생생한 학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규 교육장은 "지역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연계 특화사업을 발굴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성남교육지원청, 태국 마하사라캄 대학 부설초와 교류 과학·에듀테크 국제교류 '새 지평'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은 지난 4월 7일 교육지원청사에서 태국 마하사라캄 대학 부설 초등학교 교장 및 마하사라캄 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프렌즈 성남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과 교육국장을 비롯해, 태국 마하사라캄 대학 부설

초·중등학교 교장, 마하사라캄 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 마하사라캄의 주요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일반적 인 문화 체험 교류를 넘어, 성남의 우수한 에듀테크 인프라와 태국의 전통·과학 교육을 연결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하사라캄 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장이 참석해 성남 관내 학교와

태국 대학 교육의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성남 국제교류의 핵심 방향인 'C.O.C' 기반의 양국 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 ▲성남 관내 학교와 태국 학교 교사 간 과학·생태 융합 공동 수업 ▲양국 지역의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학생 주도형 온·오프라인 수업 활성화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성남 관내 학교와 마하사라캄 대학 부설 학교 간의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의 학생들이 기초과학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만남은 초등학교 간의 교류를 넘어 해외 대학의 인프라까지 우리 아이들의 학습 생태계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성남의 학생들이 디지털 에듀테크와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융합적 사고를 갖춘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ssm@**

# 고양교육지원청, 고양 IB벨트 미래교육 출범

### 이현숙 교육장 "미래교육에 도전하는 출발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숙)은 4월 16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2026년 고양 IB벨트 미래교육 출범식'을 열고 초·중·고 연계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 IB교육 연구공동체 교사 위촉장 수여와 선도학교 현판 전달이 진행됐다. 오마초, 행주초, 일산중, 풍산중, 고양동산고, 일산대진고 등 6개교는 초·중·고를 잇는 거점학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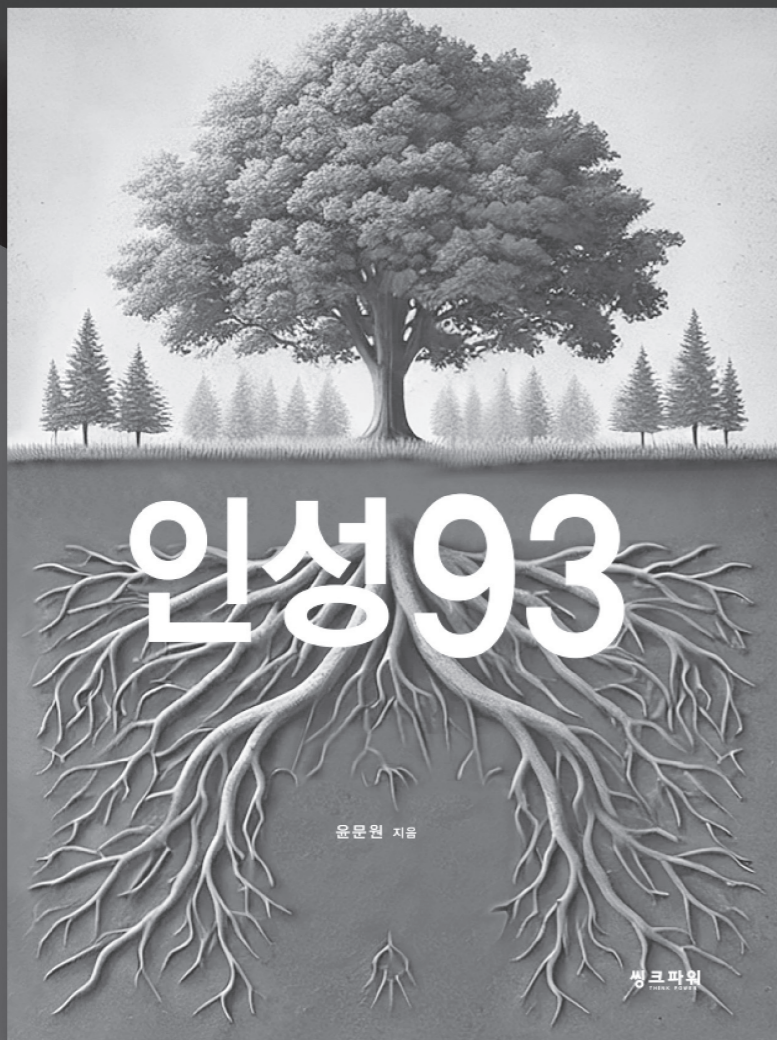
또한, 고양 IB교육 연구공동체 운영 방향과 선도학교 기능이 공유됐으며, 'IB교육 체험 공유학교'

운영 계획도 안내돼 탐구 중심 수업 확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고양 IB벨트는 IB교육 적용을 통해 탐구·개념 기반 수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초·중·고를 연결하는 연계형 교육 모델로 학생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출범은 함께 미래교육에 도전하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교실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수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93가지 인성 덕목을 담은 삶의 지침서



### 인성교재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저자 **윤문원**  
인성교육전문가  
중·고교과서 다수게재

출판사 : 씽크파워 (440p)      정가 : 24,000원  
쿠랑,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가능

단체구입문의 : 010-7401-9855 유기성 본부장  
(학교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구입관련)

인성교육진흥법관련조항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및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 서울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 공직기강 감사

### 정치적 중립 위반 집중 점검... 5월 21일~6월 3일까지 선거기간 '집중점검기간'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김천홍)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4월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총 16개 감사반을 구성해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정치행사 참석 ▲SNS를 통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주요 정책 정보 유출 등이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를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감사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미준수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

탈 등 복무 위반 행위와 직무 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각종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철 발상할 수 있는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

에 엄정 대응해 공직기강을 확

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홍 감사관은 "이번 선거는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사소한 행동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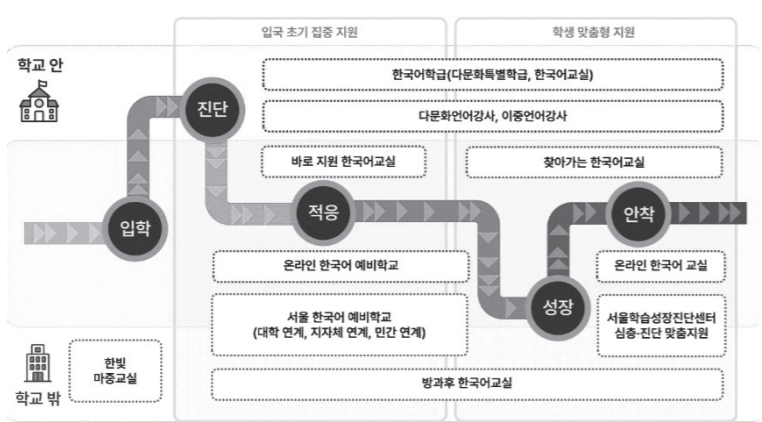
# 서울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단계별 한국어교육 확대

### 입국 초기부터 교실 안착까지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 구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 대행 김천홍)은 4월 7일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장벽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교실 내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입국 초기부터 실제 수업 참여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학적 생성 이전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전에 학습하는 '한빛마중교실'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 진입 전 초기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내 한국어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어학급'을 기존 33학급에서 47학급으로 확대한다. 이는 학생 개인의 언어 역량 향상뿐 아니라 수업 중 소통 지원을 줄여 학급 전체의 학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

학교'를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형 교육과정으로, 4월 6일부터 14주간 숙명여자대학교와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집중적인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동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바로지원 한국어교실'을 운영해 한국어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약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의 빠른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 형성을 돕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지원체계가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비이주배경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언어 격차가 해소되면 교사는 수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주배경학생에게 언어는 학교라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라며 "입국 초기부터 교실 안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 '결:티움 학생맞춤통합지원' 간담회 열고 교원과 운영 성과·한계 공유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은 4월 16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2026 교육장과 함께하는 결:티움 학생맞춤통합지원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 교원들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중·고 교장과 교사 등 현장 교원 8명과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운영 현황 공유와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경험과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 조사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이후 교직원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사각지대 학생의 조기 발굴과 지역기관 연계가 활성화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체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 교과서 밖 생생한 역사 체험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근현대사기념관과 역사교육 협약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수)은 4월 16일 오전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근현대사기념관(관장 윤경로)과 학교자치 및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교육 자원

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교원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사교육

역량 강화 연구 지원 ▲연구 및 홍보 협력 ▲공동 홍보 추진 등이다.

최창수 교육장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며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성북강북만의 특색 있는 협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생 배움·성장 지원

### 수학교사 대상 AI·디지털 연계 교실 적용 참여형 연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오는 4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내 중등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2026 연구하는 수학교사'를 위한 평가·디지털 적용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사례 중심 수업·평가 설계와 공학 도구 실습을 통해 교실 적용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총 8차시(4회, 각 2차시)로 구성된 집합 연수로 진행된다. 수업과 평가 설계, AI·디지털 연계 적용, 공학도구 활용 실습과 질의응답 등 현장 적용 중심 내용으

로 운영된다. 연수는 성적 미산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시간의 80% 이상 참여 시 이수로 인정된다.

1일차 연수는 4월 28일 중부교육지원청 별관 강의실에서 열린다. 『AI가 쉬워지는 최소한의 수학』 저자인 이동준 교사가 'AI 시대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수업 현장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과 교사 간 협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2일차에는 수학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한 교사의 역할 확장 사례를 공유하고, 3일차에는 평가 문항 개발과 공학도구 실습을 통해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

을 갖는다.

마지막 4일차에는 나홍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뇌과학 관점의 따뜻한 인재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정서교육을 교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공문에 안내된 설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도규 교육장은 "AI와 디지털은 교사의 수업과 평가를 정교하게 지원하는 도구"라며 "책과 사례, 실습과 나눔을 연결해 연구하는 수학교사가 교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정서교육까지 함께 다루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지역 교육 격차 해소

### 도봉구 4개 기관 협력... 체험 중심 미래교육 확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4월 17일 도봉도서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북한산생태탐방원, 시립창동청소년센터와 함께 '지역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북부교육지원청-DO:LINK(두링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해 체험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도봉구 지역 4

개 기관은 독서, 로봇, 미래기술, 자연·생태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참여 학급 모집 및 일정 편성 등을 담당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체험 중심 운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봉구 지역

기관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이를 계기로 서울교육협력특화지역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 만족도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선 기자 kbs@

Advertisement for TIEMEDICAL (주) featuring a heart monitor and text: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높은 마진율', '노후대비', '확 줄어든 재고부담', '홍보 및 행정지원',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어떤 수술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티에프메디칼과 점주님들입니다.'

# 영유아 체험 '다같이 해봄터' 본격 추진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허문 상호개방형 체험 운영... 지역 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4월 13일 올해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영유아 체험 지원사업 '다같이 해봄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체험 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보육의 보편적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를 넘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지역 간 체험 경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직속기관은 유치원 중심, 지자체 육아종합지



원센터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험 프로그램을 상호개방형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3곳과 대학 5교, 육아종합지원센터 29

곳 등 총 37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지역 연계 체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도내 전역으로 체험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연극·뮤지컬·오감 미술 등 문화예술 체험 ▲안전 체험·직업 놀이·인공지능

(AI) 연계 프로그램 등 기관 특색 체험 ▲가족 참여형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참여 대학은 전공 기반 전문성을 활용해 농어촌 및 소규모 기관 등 체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지자체·교육지원청 간 협업 강화 ▲운영기관 간 전문가 지도 및 우수사례 공유 ▲사전·현장·중간·성과 나눔의 4단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체험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역사회 체험처 지도(MAP)'를 개발·보급해 학부모와 기관이 체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

#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현장 안착 위한 관계자 연수

###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지원·체험처 운영 중심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4월 15일 양평 불룸비스타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대상 연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영유아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연수에는 도내 34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지원, 체험처 운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주요 사업인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운영'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보편적 질을 높이고 정책의 실질적 실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센터장과



담당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지원과 체험처 운영을 위한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정서·심리 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

여기관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유관기관 간 협력 연결망을 강화해 유보통합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선 기자 kbs@

# 성남교육지원청, 현장 중심 정서 지원 체계 구축

### 위(Wee)센터, 꿈샘 멘토단 위촉식... 학업중단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 위(Wee)센터는 지난 4월 10일 차바이오텍플렉스에서 '2026년 위(Wee)센터 꿈샘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꿈샘 멘토단은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협력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심리·정서 지원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차의과학대학교 이주혜 교수의 지도 및 수퍼비전 아래 사전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멘

토가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해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멘토의 현장 중

심 실무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수 교육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ssm@

# 경기 안산공고, '지역연계상생형' 특성화고 도약

### 지역 산업·교육 만나는 혁신 모델 구축... AI·로봇 분야 인재 양성



경기도 안산의 안산공업고등학교(교장 김경수)가 미래 신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로봇 기반 하이테크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연계상생형(경기협약형) 특성화고'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3일에는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와 '지역 기반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안산공고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지역연계상생형) 사업 선정을 위해 구성원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학교와 지자체, 대학, 기업 및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산의 특화 산업인 AI·로봇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 우수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안산형 정주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들과 광범위한 업무 협약(MOU)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안산공고는 ▲한양대학교 ERICA(SW중심 대학사업단 등 4개 사업단) ▲한

국공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대림대학교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35개 기업 참여)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견고한 산·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모델학교 신청을 통해 안산공고는 6개 전 학과를 스마트기계과, 스마트전자과, 스마트화학공업과, 콘텐츠디자인과, SW콘텐츠개발과로 재구조화하고, 대학의 첨단 인프

라와 기업의 현장 과제를 수업에 도입하는 '기업협약형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수 교장은 "우리 학교는 안산의 유일한 공업계 거점 고교로서 지역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혁신해 왔다"며, "이번 경기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통해 안산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최고의 기술 교육을 받고, 지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안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민 기자 ssm@

**PMZ**  
Pozzalan Mat Zone

평균 98.2%, 원적외선 방사율 90.4%의 친환경 매트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포졸란매트존입니다.

서귀포시 '치유의 숲' 조성  
용인시 '여성길(Earthing)' 조성  
의정부시 맨발로(路) 조성

▶ 4줄란 매트길의 특성

1. 원적외선 방사: 세포조직을 활성화시켜 온열효과로 인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향균: 포졸란 분말을 표면에 도포하여 불필요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준다.
3. 탈취: 외부환경으로부터 차단막 역할을 하여 기존제품 대비 부식속도가 느리다.
4. 친환경성: 천연소재로서 자연환경과 이질감 없는 경관의 연출이 가능하고 수요가 높다.

UARU (주)우아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교산동막길 108-36 T. 033-808-7013 www.uaru.co.kr



# 시흥교육지원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 경기시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지난 4월 8일 경기시흥교권보호지원센터(연성초등학교 4층)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시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및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교수, 학부모, 법조인, 경찰,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

으로 위촉하고, 학교급(유·초·중·고)을 고려한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의결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공명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공동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도모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는 소위원회 운영 및 심의 내용과 조치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고, 워크숍은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주요 법령의 해석, 심의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은 "총회와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열희 교육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ssm@



# 공간 혁신이 만든 교육 변화... 무안초등학교, 미래학교 모델 제시

노후 건물 재구성... 친환경 설계로 교육 기반 혁신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미래형 수업 체계 본격화  
 개방형 중앙공간 조성... 학생 소통·휴식 중심 역할  
 유연한 학습 구조 도입... 참여형 수업 환경 확대

## 무안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학교가 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초등학교는 오랜 시간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전통 있는 학교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 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진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교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무안초등학교는 친환경 설계와 디지털 학습환경, 학생 중심 공간 구조를 결합한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교육과 공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 ■ 노후 학교의 한계를 넘어, 교육환경 전면 재구성

무안초등학교의 변화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재설계'에 가깝다. 오랜 시간 사용된 기존 건물은 물리적 노후화뿐 아니라 획일적인 공간 구조로 인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추진된 이번 사업은 기존 공간의 한계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 교육활동이 가능한 구조로 학교를 전면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설계는 교실과 복도 곳곳에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건축 자체 역시 친환경 수성 페인트와 점토벽돌 등을 활용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형을 새롭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공간 개선이 곧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 ■ 배움·소통이 연결된 '입체적 학교 공간'

새롭게 조성된 무안초등학교는 '머무는 공간'이 아닌 '활동하는 공간'으로 설

계됐다. 학습과 휴식, 소통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는 학생들의 일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중앙 공간이다. 높은 천장과 계단형 좌석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학생들의 소통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짧은 휴식을 취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1층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조성됐다. 이 공간은 수업 사이의 짧은 휴식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교류, 간단한 학습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생 중심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완공될 커뮤니티동과 운동장까지 더해지면 이러한 공간 구조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학습과 놀이, 휴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 ■ 공간 변화가 만든 수업 혁신과 학습 전환

무안초등학교의 변화는 교실 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일방향적 수업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실 환경이 유연하게 재구성됐다.

교실 내 가구는 이동과 재배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돼 토의·토론 수업과 모둠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단순히 교사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실 밖 공간 역시 학습의 연장선으로 활용된다. 개방형 공간과 소규모 활동 공간이 함께 마련되면서 학생들은 학습 주제와 활동 유형에 따라 적합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별 학생의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이 더해지면서 수업 방식은 한층 다양해지고 있



학교 전면부



학교 뒷들



학생 휴식공간



본관 중앙 계단 쉼터



일반교실



아울마당

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사들 또한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수업 설계 방식을 변화시키며, 협력과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 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변화의 효과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일상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넓고 쾌적한 공간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구조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높이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력 활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실제

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 수업이 훨씬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학습 효과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 역시 변화된 환경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학생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수업 설계 자체가 달라졌다"는 현장의 반응은 공간 혁신이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가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자녀가 학교생활을 더 즐거워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역시 학교의 변화를 주목하며, 교육과 문화 활동이 결합된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에 기대를 나

타내고 있다.

### ■ 친환경·에너지·지역을 잇는 미래학교 모델

무안초등학교는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교내에는 팜가든과 숲속 산책로가 조성돼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에너지 순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운동장 역시 마사토로 조성돼 안전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커뮤니티동 조성은 학교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핵심 요소다. 1

층에는 마을도서관이 들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며, 2층 시청각실은 교육·연수·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새싹놀이터'와 '쑥쑥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이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이 구축된다.

임도선 교장은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초등학교의 변화는 공간 혁신이 교육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친환경 설계와 유연한 학습 공간,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결합된 이 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임병구 후보 “교육 문제 현장서 답 찾는다”

### 37개 학교 등굣길 행보 이어가... 등굣길 안전 점검 다양한 의견 청취

임병구 인천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가 3월 초부터 37개 학교 등굣길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불안한 등굣길을 설렘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4월 13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등교 인사를 넘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통학 환경을 분석해 정책해 반영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 과정’으로 진행됐다.

임 후보는 이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구월초, 선학초, 신송중 등 인천 지역 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등굣길 안전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3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는 후보의 이름을 둘러싼 유쾌한 장면이 연출됐다. 길가에 적힌 ‘임병구’를 본 학생들이 “임병구가 뭐예요?”라고 묻자, 임 후보는 “내 이름이야”라는 설명 대신 “사람 이름이야~”라고 웃으며 답했고, 아이들은 “아! 사랑이구나~”라며 화답하는 등 자



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아이들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임병구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질문과 호기심을 존중하는 것이 학교 등굣길에서는 후보의 이름을 둘러싼 유쾌한 장면이 연출됐다. 길가에 적힌 ‘임병구’를 본 학생들이 ‘임병구가 뭐예요?’라고 묻자, 임 후보는 ‘내 이름이야’라는 설명 대신 ‘사람 이름이야~’라고 웃으며 답했고, 아이들은 ‘아! 사랑이구나~’라며 화답하는 등 자

입학식에서는 ‘노란 거베라’ 꽃과 ‘맹구 인형’을 활용해 긴장을 완화하는 등 친근한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하이파이브를 건넌 때 가장 큰 보

람을 느낀다”라며, “아이들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곧 교육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별 통학 환경의 차이도 확인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대 횡단보도에 학생이 집중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고, 녹색학부모회와 학교보안관이 협력하는 학교에서는 공동체 중심 안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통학로 사각지대 문제가 확인됐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통학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빗길기가 쏟아지던 날의 등교 인사는 임 후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산으로 시야가 제한된 채 이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스마트 안전 통학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임병구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설렘으로 시작돼야 한다. AI 스마트 횡단보도와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 전 지역의 등굣길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경원초, 선후배 연합 ‘독도 수호’ 실천적 배움

### ‘4P 읽견쓰’ 적용 학생들의 삶이 배움과 연결되는 깊이 있는 학습 기회 마련

인천경원초등학교(교장 박인배)는 지난 4월 9일, 3학년과 5학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후배 연합 프로젝트 ‘독도를 지키는 힘, 우리의 관심(읽견쓰 독도 프로젝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주제 아래, 지식을 삶과 연결하는 ‘4P 읽견쓰’ 교육 모델을 적용했다. 학생들은 독도 문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스스로 탐구하고 공동체와 나누는 ‘실천적 지식’으로 변환하는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먼저 역사 사료와 지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진실을 마주하는 ‘읽기’ 과정을 거쳤다. 이어 5학년 학생들이 멘토가 돼 3학년 동생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고, 독도의 가치를 설명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견기(공동체 소통)’ 활동을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습 과정을 종합 곡선인 ‘성찰 에베레스트’로 시각화하고, 독도 수호 다짐을 담은 전문가 명함과 문구를 직접 제작하는 ‘쓰기(표현)’ 활동으로 배움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학년 간 연합 활동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5학년 학생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주도성을 발휘했으며, 3학년 학생들은 선배와의 소통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실천적 배움으로 연결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5학년 한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독도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알게 됐다”라며, “독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꾸준한 관심이라는 점을 동생들과 나누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한정현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독도 수호 의식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천적 지식으로 내면화됐다”라며, “앞으로도 읽견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배움과 연결되는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바이오과학고, 도지성 작가 초대전 ‘별과 매화 전’

### 라운카페 갤러리서 4월 30일까지... 지역 주민 일상 속 예술 접할 기회 제공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교장 이우평)는 라운카페 갤러리에서 도지성 작가 초대전 ‘별과 매화 전’을 개최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날’의 하나로, 도지성 작가의 대표작 ‘도시산책자-별’을 포함한 총 11점의 작

품을 선보였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시 첫날에는 도지성 작가가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를 본 학생

은 “평소 전시회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하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카페와 어울린 공간에서 자녀와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고 전했다. 전시회를 주관한 담당교사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며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해 문화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별과 매화전’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라운카페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달빛초, 5·6학년 SW·AI 수업

### 코딩 통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다양한 기능 구현

인천달빛초등학교(교장 장지란)는 5, 6학년 교실에서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엔트리와 네오씽키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활동이다. 아이들은 직접 코딩을 하면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게 만들고, RGB 색상 인식을 활용해 특정 색을 따라가거나 멈추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특히 모션(동작) 인식을 활용한 활동에서는 손을 흔들거나 움직이면 자동차가 반응하도록 설정하며, 마치 미래 기술을 직접 다루는 듯한 경험을 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한 번, 두 번 실험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너 옷에 있는 색은 뭔지 보여!”라고 외치는 아이들은 어느새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며, 더 새로운 기능을 확인하고 추가해 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코딩의 기초를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앞으로 다양한 SW·AI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 학익고, 사제동행 스포츠 한마당

### 농구 종목 경기로 시작 12월까지 4개 종목 진행

인천 학익고등학교(교장 김경심)는 지난 4월 7일 2026학년도 학교장배 사제 동행 스포츠 한마당 행사를 교사팀과 학생팀의 농구 종목 경기로 시작했다.

우선 1, 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교육 가족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급의

단합과 협동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경기 일정 수립부터 심판 배정, 경기 기록 관리 및 게시, 심판과 경기 진행 등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 주도로 진행돼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본행사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4개 종목이 진행되며 운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의 해소와 신

체 활동 증가를 통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용섭 기자 ays@

# 인천영종초, 생태환경교육 현장체험학습

인천영종초등학교(교장 유병선)는 지난 4월 14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교육과정 및 생태환경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장 구체적인 생활 공동체인 ‘마을’을 직접 걷고 체험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통합교과 ‘마을’ 및 지역연계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을 주변 자원을 활용(하늘도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협조해 사용)했다. 그리고 봄이 완연했을 때를 체험 시기로 선정해 학생들이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게 활동들을 구성해 진행했다.

체험해 참여한 학생들은 “마을에 대해 다양한 장소, 직업들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등의 소감을 남겼다.

유병선 교장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학생들이 생태환경과 자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 학교를 삶으로!

# 일상을 배움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

# '질문하는 힘' 키우는 IB로 미래 교육 해법 모색

## 대전교육청,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 210명 대상 IB 프로그램 이해 연수

대전시교육청은 4월 1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 21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IB 프로그램 이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교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단순 암기 중심의 전통적 평가 방식을 넘어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체계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강 강사로는 아주대학교 수학과 박형주 석좌교수가 초빙되어 강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전 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과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 이날 '미래 교육의 방향과 IB, 배움의 방향과 이유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대전 교육 가족들에게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

했다.

강연에서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검색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로의 전환, 상이한 학문 영역을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력 함양, 국가 교육과정과 IB 교육과정의 비교와 조화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IB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이 깊이 있는 탐구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전진석 부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IB 프로그램 확산과 대전 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하는 교실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대전교육청, 제59회 과학의 날 기념식 개최

## 과학교육 발전 기여 교원·기관 표창... 학생 참여로 뜻깊은 시간 가져

대전시교육청은 4월 17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59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학생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과학교육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에 우수 과학교사 5명, 교육감 표창에 학생 과학 탐구 활동 지도 및 학습 개선에 기여한 교사 6명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또한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과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국립중앙과학



관, 대전테크노파크,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 관계자도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학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된 대전삼성초등학교와 대전삼천중학교도 각각 표창을 수여받았다.

대전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김영진 과장은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대전노은초, 전문 학습공동체로 IB 기반 수업 혁신 이끈다

## 학년별 탐구단원 설계 및 운영 준비 완료, 교생 실습 통해 미래 교육 모델 제시



대전노은초등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학년별 탐구단원(UOI, Unit of Inquiry)을 공동 설계하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실천하며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학년별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는 개념 중심 탐구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 탐구단원을 기반으로 교과 간 연

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삶과 연결된 맥락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탐구 질문 개발, 수업 나눔, 피드백과 성찰의 과정을 반복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수업 개선을 넘어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 가능한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교생 실습 기간을 통해 예비 교사들에게 이러한 미래 교육의 실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순 암기 중심의 전통적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

업의 주체가 되어 개념을 탐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변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노은초등학교 김옥세 교장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바탕으로 IB 철학이 반영된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준비된 탐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이며, 예비 교사들에게도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가치를 전달하여 미래 교육의 희망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학부모 상담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전평생학습관, '부모 자녀 마음어임' 상담 실시

대전평생학습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자녀 마음어임'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학부모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

려움과 갈등을 해소하여 건강한 교육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상담 166회, 집단 상담 38회, 가족 상담 2회를 연중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직장 생활로 인해 상담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집단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대전평생학습관 우창영 관장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잇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학습관 누리집 또는 전화(042-220-05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현호 기자 whh@

# 현장 중심 정책연구 통한 대전교육 질적 성장 기여

##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과제별 공동연구진 협의회 운영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2026년 자체 연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연구 과제별 공동연구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연구 방향 설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각 연구 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과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연구 주제별 핵심 쟁점과 연구 방법,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2026년 마음 건강 관리 지원 사업, 학교도서관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정책, 학생 중단 연구, 교직원 중단 연구 총 5개 자체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과제에는 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수 등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진은 다양한 학교급과 직위를 아우르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 현장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연구에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연구 책임자와 공동연구진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청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김선희 소장은 "공동연구진 협의회는 연구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결합된 정책연구를 통해 대전교육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 대전목상초,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균형잡힌 식생활 형성 지원

대전목상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교생과 병설유치원생이 참여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 건강 식생활의 중요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영양 이론과 조리 체험이 결합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대전YMCA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으로 진행했다. 특히 특수 차량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이 색다른 환경에서 몰입도 높은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나트륨과 당류 과다 섭취의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선택 방법을 익혔으며, '튼

튼 건강 고구마 쿠키' 만들기 체험을 통해 건강한 간식 선택의 중요성을 배웠다.

대전목상초등학교 최경화 영양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는 식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간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전목상초등학교 김태윤 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의 영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우현호 기자 whh@

우선구매대상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의 친환경 다중 OH 라디칼과 나노버블수를 이용한

# 그리스트랩 오수정화장치

그리스트랩 오수처리장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는 수월하게!  
급식 위생과 직결되는 조리실 환경을 청결하게!

주식회사 한스쿨

**한아름테크 (전남 총판)**

전화 0505-629-3366  
팩스 0505-619-3366

<https://worldfurni.com>



부산·경남 가구 조달 판매 1위

# WORLD FURNITURE

상담전화  
**1588-3886**

 **월드퍼니처**  
www.worldfurni.com

**학교 교육용 가구 전문 생산업체 월드퍼니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품질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ONLY WORLD BENEFIT

BENEFIT 01

### 연계고용담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

BENEFIT 02

### 총액 계약

조달청과 수의시담  
하여 계약을 체결

BENEFIT 03

### 수의 계약

금액에 상관없는  
수의계약 가능

주식회사 월드퍼니처 | 1588-3886 |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23

# “나노 세계의 신비, 시로 설계하고 눈으로 확인”

## 부산동성고 영재학급, 부산과학축전서 ‘AI 기반 초음파 분자 카테일 체험’ 부스 호평

부산동성고등학교(교장 김희석)는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의과학축전 with 부산과학축전’에서 부산동성고 영재학급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AI 기반 초음파 분자 카테일 체험 부스’를 운영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스는 ‘초음파 공동현상(Cavitation)을 이용한 나노 카테일 제조 공정’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물리적 힘인 초음파를 이용해 액체 속에 미세 기포를 만들고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집중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는 ‘나노 유화’ 공정을 선보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자체 개발한 앱스크립트 기반의 ‘AI 기반 나노 에멀전 분석앱’이다. 학생들은 사전에 블루투스로 시뮬의 농도 및 MCT 오일양에 따른 유화 시간을 정밀 측정해 데이터셋을 구축했고, 이를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시켰다.

관람객이 선택한 음료의 레시피를 입력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밀도와 점성을 분석해 최적의 초음파 조사 시간을 제안하고 산란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부스 운영을 맡은 신정민(2학년) 학생은



“가장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순간은 예비 실험 때 겪은 ‘청포도 주스의 역설’이었다”고 회상했다.

신 군은 “이론상으로는 초음파를 쏘면 모든 음료가 투명해져야 하는데, 청포도 주스는 아무리 조사해도 불투명했다. 처음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선생과 함께 토

론하며 이것이 주스 속 입자가 빛을 여러 번 튕겨내는 ‘다중 산란’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후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왜 어떤 음료는 투명하고 어떤 음료는 불투명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함께 부스를 운영한 박도현(1학년) 학생은 “우리가 직접 코딩한 AI 모델이 관람객의 레시피를 분석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카테일에 그린 레이저를 쏘아 ‘틴달 현상’으로 나노 입자를 확인시켜 주었을 때 어린이들이 신기해하던 모습이 잊지 않는다”며, “교과서 속 수식이 실제 공정이 되고 기술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미래 과학도로서의 꿈이 더 확고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동성고등학교 김희석 교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AI와 나노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학적 기질을 검증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 융합 인재의 희망을 보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첨단 과학 기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동성고등학교는 이번 축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적 R&E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AI 및 나노 기술 등 첨단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황요규 기자 hog@



# “청소년이 머무는 도시가 미래가 머무는 도시”

## 부산 청소년 직능단체 첫 연대... 지방선거 맞아 기자회견서 정책 공약 반영 촉구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청소년 직능단체들이 처음으로 연대해 청소년 정책을 공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홍봉선)는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시민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한 ‘4대 분야 12대 정책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 청소년계가 선거를 앞두고 공동의 정책 의제를 제시한 첫 사례로, 지역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부산의 청소년 정책이 부서별로 분절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산청소년재단 설립’을 최우선 과

제로 제시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증가에 대응하는 ‘부산형 회복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교통 패키지’ 도입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눈길을 끈 공약은 금정산 일대에 조성하는 ‘청소년 힐링 공간’이다. 청소년들은 “아파트와 학원 중심의 생활환경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금정산을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교육과 치유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지도자뿐 아니라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부산지역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 위원들은 “청소년은 선 거권은 없지만 분명한 시민”이라

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더 이상 선거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핵심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이세인 위원은 “청소년이 떠나는 도시에 미래는 없다”며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것이 곧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를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공식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를 확인하는 정책 질의 및 협약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 청소년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후보자들이 청소년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60만 부산 청소년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영 기자 juy@

# 부산교육청,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확대 본격 추진

## 173명에서 244명으로 40% 확대 채용... 5월 중 추가 수요 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부산의 모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ijh@

올해 244명까지 약 40%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특수학교 9곳과 10개 도서관 등에서만 채용하던 장애인 인력을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공립학교 전체로 채용 대상 기관을 넓혀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지난 2월에는 전체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1개 학교와 기관에서 43명의 장애인 인력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

이후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5주간의 맞춤형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부산시교육청은 5월 중에도 추가 수요를 파악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ijh@

# 부산교육청, 5239억 원 투입 교육격차 해소 온 힘

## 교육 환경 열악한 원도심·작은학교 346교 대상 학생 균형 성장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부산 모든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교육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원도심 및 작은학교 등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346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전년 대비 49개 사업과 724억 원이 확대된 총 5,239억 원 규모로, 12개 영역 137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12개 영역 ▲학력신장

▲과학·융합 ▲디지털·AI ▲인성 ▲문화·예술 ▲진로·진학 ▲방과 후·돌봄 ▲교육복지 ▲교원인사 ▲인력지원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교육)을

특히, 학력신장 분야에서는 원어인 교사와 함께하는 ‘BE-Talk’, 중·고등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학교급 전환기인 초6·중3 대상 ‘점프 업 윈터 스쿨’ 등 학생 맞춤형 사업을 운영해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AI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학생들의 AI 기기 활용 능력을 밀착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적응을 돕는다. 또한 학교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등 1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집중 관리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

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대한 분석과 누적 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부산의 모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ijh@

OMAX

(주)오맥스

AI·데이터 기반 미래형 과학실,  
우리가 만듭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지능형 과학실도 진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기자재 에듀테크 1등 기업

설계부터 구축까지, 지능형 과학실 토탈 솔루션

현미경

WiFi 현미경

실물화상기

VR

밀폐시약장

도 맥 스

Tel : 1544.9343

# 제천산업고, 실무형 인재 양성 나선다

### 뷰티 전문 기업 끌리메와 현장 중심 교육·취업 연계 강화 위한 산학 협력 구축

제천산업고등학교(교장 최장민)는 17일 오후 3시 교장실에서 뷰티 전문 기업 끌리메(대표이사 이은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중심 교육 강화와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과 산업 현장에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현장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문가 특강과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 취업 연계 및 채용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선 과정에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끌리메는 뷰티 산업 현장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학생들에게 최신 트렌드와 실무 기술을 전달하며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천산업고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에 긴밀히 연계해 실무 중심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며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순 대표이사는 "미래 뷰티 산업을 이끌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장민 교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 중심의 실무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진천상업고 창업동아리, 지역사회와 함께 가치 실천

### 학생 주도 디자인·제작한 장애인식개선 컵홀더 5천장 장애인복지관 방문 기부

진천상업고등학교(교장 김정미)는 창업동아리 '아이디어스'가 17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접 제작한 장애인식개선 컵홀더 5,0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진천상업고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창업동아리'라는 비전 아래 16개의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역량 강화 캠프와 찾아가는 YES 마켓, 각종 경진대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공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나눔을 주도한 '아이디어스'는 디자인 기반 굿즈 제작 동아리로,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 시상식



기부된 컵홀더는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직접 기획과 디자인,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완성한 것으로, 학생 주도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동아리 소속 신윤석 학생은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년째 이어온 활동이라

더욱 뜻깊고, 이러한 나눔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교장은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계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각 학교는 3월부터 12월 사이 1주일을 선택해 운

영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일, 광복절, 독도의 날 등 주요 기념일과 연계해 교과 및 체험활동과 통합 진행한다.

교육 주간 운영을 위해 학교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프로젝트 학습, 사적지 탐방, 전문가 특강, 캠페인, 글쓰기와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중학교 중심으로 독립운동사 동아리를 운영해 지역 독립운동사를 탐구하고, 사진 전

시와 역사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연계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역사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의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독립운동사를 삶과 연결된 역사로 이해하고 그 정신을 실천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확대 의지를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교육청, 미래 특수교육 발전 방향 공유

### 공·사립 특수학교장 대상 특수학교 리더그룹 연찬회 운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7일 북카페양림 회의실에서 도내 공·사립 특수학교장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리더그룹 연찬회'를 운영했다.

이번 연찬회는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미래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자리다.

특수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 구성원의 직종이 폭넓어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날 연찬회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학교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리더십으로 특수학교를 학습공동체로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디자인연구소 김현섭



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수학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리더십 구현과 협력적 학교문화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석한 학교장들은 "특수학교의 다양성을 학교 발전의 강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충북 특수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기성 기자 ygs@

# 동성고, AI 시대 대응 역량 키운다

### KISDI 연계 현장 견학·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운영



동성고등학교(교장 김태선)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견학과 특강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정책

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연구원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현경 박사는 특강을 통해 책임 있는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의식을 설명했다.

참여 학생은 "AI를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험이 인상적이었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태선 교장은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향후 협력 확대 계획을 밝혔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개최

### 특수교육원, 실무 중심 평가 진로 탐색·직업 역량 강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 특수교육원은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의 직업 능력 향상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가죽공예, 바

리ستا, 외식서비스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돼 실제 직무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수 학생들은 전국 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기성 기자 ygs@

# 충북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확대 운영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지속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프로그램 수를 기존 6개에서 15개로 늘리고, 교육·체험·문화·진로 영역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동행카드 지원과 스마트기기 제공 등을 통해 학습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유기성 기자 ygs@

**100% 참자연 그대로** 참자연 그대로 쌀국수  
**보리, 현미 쌀국수** 밀가루 NO!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건강한 국수

- ※ 청원생명쌀로 만든 친환경 쌀국수
- ※ 청주시 학교급식 선정 제품!
- ※ 밀가루 0%, 100% 국산 곡물만 사용
- ※ HACCP 인증 시설 + 특허 받은 국수 제조 기술

※ 우리 아이 급식, 이왕이면 쌀로 만든 건강한 국수로!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고 국내산 곡물만으로 만든 쌀국수! 남은 쌀 소비 + 학생 건강까지 생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 답례품, 선물용으로도 딱!**  
**정성 담은 건강한 국수,**  
**돌잔치, 행사, 감사 선물로도 인기!**

납품, 구매문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북로 836, 1층  
 대표 윤충근 ☎ 010-5485-4748



# 순천삼산초, 학생들의 꿈과 미래 역량 키운다

### 무럭무럭 꿈이 자라나는 '진로체험의 날'... 학급별 다양한 직업인 초청 강연·체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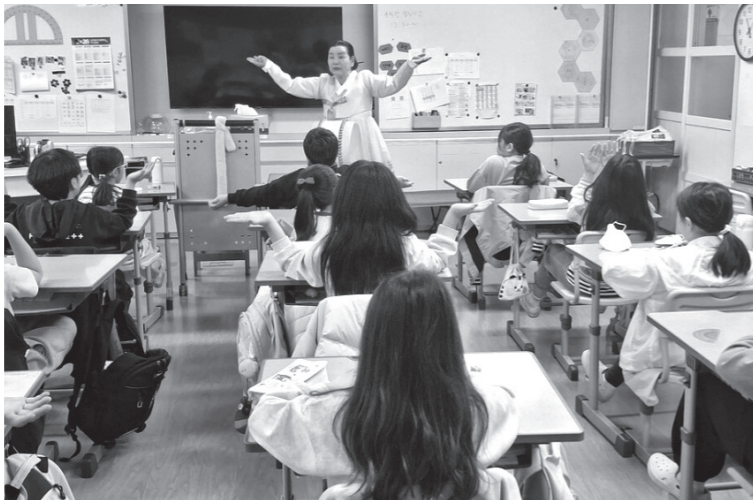
순천삼산초등학교(교장 조계정)는 지난 4월 9일 3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급별로 다양한 직업인이 초청되어 강연과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1학년은 소방관을 만나 안전과 봉사의 가치를 배우고, 2학년은 경찰(SPO)과 김철하 도예가를 통해 사회 안전과 예술적 창작의 의미를 체험했다.

3학년은 학부모 CEO와 최형만 소설가를 초청해 기업가 정신과 문학 세계를 탐구했으며, 4학년은 판소리 명인 김양남 소리꾼과 강사화 시인을 초청해 그림책 이야기와 시 이야기를 함께 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5학년은 바리스타와 강인영 사



작가들을 통해 직업 속 창의성과 섬세함을 느꼈고, 6학년은 육정아 해군연주자와 신승희 장구선생님에게 전통예술을 배우고 이용권 웹툰작가를 만나 재미있는 웹툰 세계를 탐색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

를 활용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강사와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한 뒤 소감문을 작성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며,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

4학년 김00학생은 "함께 글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았고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순천삼산초등학교 특강 강사로 함께 한 강사화 시인은 "학생들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어른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직업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순수함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진로담당 최남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만열 기자 2580news@daum.net

## 전남교육청장성도서관, 작가와 함께하는 '생태 그림책 여행'

### 지역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공연·체험활동 통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 공유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관장 차계옥)은 지난 4월 9일 '2026년 상반기 인문학으로 만나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관민수

생태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그림책을 통해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관민수 작가는 자신이 작가가 된 과정과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들려주었으며, 특히 1인극 공연을 위해 제작한 소품들의 비화를 소개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또또에게 일어난 일' 낭독회로 문을 열었다. 이어 대표작 '아주아주 썸 모기약이 발명된다면'의 1인극 영상을 감상하며,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환경

변화로 인해 겪는 영향에 대해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생태계 공존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마지막 체험활동에서는 그림책의 한 장면을 투명지에 대고 따라 그린 뒤,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꾸미는 활동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작가의 화법을 직접 경험해보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발휘해 작품을 재구성하며 그림책의 세계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아이들이 작가와 소통하며 상상력을 나누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충열 기자 2580news@daum.net

## 북평초, '목포의 어제와 오늘' 잇는 봄 현장체험학습

### 바다 과학 탐험부터 근대 역사 학습, 해상 케이블카 체험까지 오감 만족

북평초등학교는 지난 4월 7일 학생들의 탐구심을 기르고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목포 일대로 '2026 봄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과학, 그리고 역사가 어우러진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코스로 방문한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학생들은 깊은 바다 속 생태계와 해양 과학의 원리를 체험했다. 잠수정 조종 체험, 바다 소리 듣기 등 다채로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며 미래 해양 과학자를 꿈꾸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은 목포 근대역사관을 찾아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흔적과 근대 도시 목포의 형성 과정을 살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

에서 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되새기며, 역사를 잊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학습의 대미는 목포 해상케

이블카 탐승이 장식했다.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케이블카에 몸을 실은 학생들은 발아래 펼쳐진 다도해의 비경과 유달산의 절경을 감상하며 탄성을 자아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북평초 한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역사를 직접 보고,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정말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다.

북평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번 봄 현장체험학습이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친구들과 배려하며 소통하는 소중한 성장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희 기자 2580news@daum.net

## 국악 소리로 치유하고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

### 구례교육지원청, 초등학생 25명 대상 지역의 색 품은 '국악 오케스트라' 창단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은 지난 4월 7일 오후 4시, 구례북초등학교 음악실과 연습실에서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구례 동편소리 국악 오케스트라' 개강식을 가지며 2026년 첫걸음을 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금, 해금, 대금, 아쟁, 피리, 타악기반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구례의 색을 품은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편제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며 구례의 특색을 살린 음악 장르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참여 학생들은 파트별 수업을 통해 국악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전통 악기로 구성되며 국악기의 음색·역할·특성을 배우고, 각 국악기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웅장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만드는 재미

에 흠뻑 심취했다. 올해 국악 오케스트라 수업을 참관한 한 학부모는 "구례 특색을 살린 국악오케스트라 창단 및 다양한 국악기를 구입해주고 지역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마련해준 구례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 우리의 전통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김유동 교육장은 "구례 학생들이 국악 놀이와 합주, 공연을 통

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서로를 알아가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다. 지역의 전통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다가가는 태도까지, 국악이 단순한 수업을 넘어 학생들에게 동기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문화예술 감수성이 길러지기를 희망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구례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지역 특색 문화예술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전통예술인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장삼석 기자 2580news@daum.net



## 여수교육지원청, 친절·소통으로 청렴1번지 도약

###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청렴 생태계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 가동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이 '친절'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청렴 인센티브 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체 4위를 기록하며 청렴도 인센티브 우수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여수교육지원청은 ▲실행력 있는 청렴 생태계 강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지원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3대 핵심 전략으로 정하고, 2026년 세부 추진 과제를 본격 가동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청렴도 향상대책이행단'을 상시 운영한다. 특히 구성원 간의 벽을 허무는 '소신특소통과 신뢰의 토크'를 통해 최근 늘어나는 신규공무원과의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하향식 지시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향식 청렴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도 강화된다. 공사 관리, 방과후학교, 학교운동부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 정밀 분석 및 집중 개선을 실시하며, 누구나 쉽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청렴명함'을 제작해 배포한다. 조직

내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갑질심의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교육 현장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친절과 공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숨은 청렴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청렴 에너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렴 순위의 상승은 전 직원이 친절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2026년에도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친절함 여수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태석 기자 2580news@daum.net

## 전남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우주글당, 체험활동 전개

### 경남 하동군 일원서 자연·역사·전통 잇는 첫 창의적 활동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관장 오준현)이 초등·중학 학력 인정 문해교육 우주글당 학습자들과 함께 지난 4월 7일 경남 하동군 일원에서 올해 첫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올해 첫 일정으로 마련된 이번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실 중심의 문자해독 교육을 넘어 성인 학습자들이 지역의 자연과 역사,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움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 속에서 삶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천년고찰 쌍계사와 화계장터를 찾아 중학 국어 교과 내용의 배경인 삼전강과 지리산 권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지역 생태와 생활의 가치를 체험하고, 전통 사찰 문화와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 현장에서 자연·역사·문화를 오감



으로 접하며 배움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준현 관장은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 성인 학습자들이 교실 밖 배움터에서 삶과 연결된 평생 교육을 실감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우주글당 학습자들이 다양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과 사회적 소통 역량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우주글당은 성인 학습자들의 기초준해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 "운동장의 합성, 스마트폰 속으로"

### 전남 광양고, '리얼타임' 소통으로 공교육 신뢰 높여



전남 광양고등학교(교장 강성중)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혁신적인 소통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광양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스포츠 축제에서 '오픈채팅방 실시간 중계'라는 이색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축제의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실시간 공유한 것이다.

이번 소통 채널에는 순간 접속 학부모 수가 150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의 경기 모습과 웃음 섞인 땀방울을 보며 채팅방을 통해 뜨거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광양고 학부모회장 김00 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평소 보기 힘들었던 고등학생 아들의 활기찬 모습과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며,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학교와 가정, 학생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양고의 이러한 '소통 혁신'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국제교류 행사 당시에도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 전 과정을 공유했으며, 2025학년도 학교 축제인 '희양제'는 학생들의 끼를 담은 3부작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성중 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에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생생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함께 소통하는 광양고'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옥란 기자 2580news@daum.net

# 전북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

### 지자체·특성화고·기업·유관기관 함께 전북 내 고교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남원시-남원용성고', '익산시-원광보건고' 컨소시엄과 손잡고 지역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분야와 지역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특성화고-기업-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다.

남원용성고는 전북 핵심 전략 산업인 농생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농업 지식 전수를 넘어 남원의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미래형 첨단 농업 교육거점으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원광보건고는 원광재단의 교



육·이로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과정과 지역 의료기관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직무 중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과 김중훈 경제부지사, 송한득 남원용성고 교장, 박은정 원광보건고 교장, 컨소시엄 참여 기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형 특성화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 △취업-성장-정주 기반의 조성 △교육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및 교원 배치 △행정 업무 경감 △규제 개선 △재정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취업-성장-정주 기반을 조성 △직업계

선도 모델 발굴 및 맞춤형 교육 실현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자체, 특성화고, 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역 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전북교육청, 소통 중심 학교급식 정책 추진

### '2026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 공간·소통의 장'의 세 번째 자리로,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부모의 시각에서 학교급식을 바라보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급식 공간·소통의 장'은 학교장, 급식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학

교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속 기획 프로그램이다.

발대식에는 학부모 정책모니터단과 교육청 급식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학교급식 주요정책 안내, 특강, 현장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학부모 정책모니터단은 4-12월까지 활동하며,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우수사례 발굴, 가정 연계 식생활 실천 활동 등에 참여한다.

또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임영근 문예재단강사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학교급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전북교육청, 현장서 개선방안 모색

### 유정기 권한대행,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탐방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16일 전주흥산초등학교(교장 채정희)를 방문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스키 초하계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

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2년차인 전주흥산초는 학교 구성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 지

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전 교직원이 함께 관찰·발굴·지원하는 '홍길동 통합지원팀' 운영 △봉사 동아리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성장 및 학교 적응 지원 △가정·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안정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탐방에 나선 유정기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주흥산초 사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내실화 꾀한다

### 전북교육청, '2026년 초등 교육과정 컨설팅 계획' 수립·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2026년 초등 교육과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교육과정의 계획, 설계·운영, 평가 전반을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학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보완·개선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중심으로 한 현장 컨설팅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년 주기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년 전체 학교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장학사와 교육과정 현장지원단이 협력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학교(학년) 교육과정 설계, 학교자율시간 운영, 정기적인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 방법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며,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공통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모든 학교와 공유할 계획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교원 역량 강화로 학생 주권의식 UP

### 전북교육청, 주권자시민교육 활성화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거의 가치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 주권자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선거교육 특강을

개최했다. '투표자를 넘어 주권자로 성장하기'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교육의 이론과 실제 △선거제도 유형 및 사례 △사례로 보는 선거·정치 미

디러터러시 등이 다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장성훈 전임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담긴 철학과 주권자로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가 무엇인지, 교육과정과 연계해 주권자 시민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박물관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 70년 이야기'를 주제로 2차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히 '투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주권자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선거교육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권자 시민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강사단 출범

### 위촉식·역량 강화 연수... 전문성·현장 대응력 갖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학부모교육 강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16일 위촉식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강사단은 △다녀 이해 △인공지능(AI) 역량교육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기후·생태전환 교육 등 8개 분야 총 51명이다. 특히 올해는 강의 시연을 포함한 엄격한 종합심사를 거쳐 전

문성, 내용 전달력,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을 철저히 검증받은 우수 인력들을 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강사단 운영의 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중 강의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 인력풀 정보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며,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부터 학부

모 교육 운영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역량 강화 연수는 실천 역량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소통 전문가 오수환 강사가 '다양한 세대 학부모와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뒤,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학부모들과의 공감대 형성 방법을 공유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공개모집과 종합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강사들이 전북 학부모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태 기자 kht@

PA·AV 산업의 뉴리더 (주)케빅은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약속드립니다.

## 학교방송시스템 우수제품기업 주식회사 케빅

장영실상 수상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등록

우수디자인 선정

우수발명품

GS인증 1등급

G-PASS 인증

주식회사 케빅  
www.kevic.com

본사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1동 606호 (민락동, 의정부 더리브 센텀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공장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곡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제품문의 1661-2669

[부안 교육문화회관]

[전남 예술고등학교]

[신남 중·고등학교]

[조선대학교 서석홀]

[철원고등학교]

[서울 매봉초등학교]

殷字·東夷·韓民族 이야기

# 아내(妻)는 정말 약탈당한 여자의 흔적일까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성(姓)만큼이나, 우리의 일상 언어에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아내'와 '처(妻)'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妻' 자의 기원을 두고 오랫동안 널리 퍼진 이야기가 있다. 고대 사회에 흔했던 약탈혼(장혼, 娶婚)의 흔적이라는 해석이다.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女)' 옆에 '손(又)' 모양이 붙어 있으니,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채 끌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이다.〔그림 25〕 '妻' 참조

언뜻 그럴듯하다. 고대에는 전쟁과 약탈이 일상이었고, 다른 부족 여성을 빼앗아 오는 일이 흔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강준식 선생은 이 통설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동이(東夷) 전통의 눈으로 보면, '妻'는 약탈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예(禮)에 따른 혼례와 성인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 □ 무릎 꿇은 사람들, 글자의 출발

먼저 문화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상(商)·주(周)·한(漢) 시대까지 사람들은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좌식 생활을 했다. 갑골문이나 금문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무릎을 꿇은 형상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나라 이후 북방에서 의자 문화가 들어오면서 좌식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일본의 세이자와(正座) 같은 풍습은 여전히 고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림 25〕 (妻, 婦, 奴, 妾) 자의 형성과정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妻				
婦				
奴				
妾				

즉, 고대 문자의 자형 속 '사랍'은 오늘날의 의자에 앉은 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은 자세다. 이 점을 놓치면 문자의 의미를 오독하기 쉽다.

### □ 머리채를 낚은 손? 아니면 머리를 올려주는 손?

이제 문제의 '妻' 자를 보자. 갑골문과 금문에서 '妻'는 '여자(女)'와 '손(又)'이 결합된 모양이다.

통설은 이 손이 여자의 머리채를 거면서 좌식이 점차 줄었지만, 일본의 세이자와(正座) 같은 풍습은 여전히 고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전혀 다른 해석이 있다. 고대의 혼례와 성인 의식에는 계례(髻禮)가 있었다. 성년이 된 여성이 머리를 올려 쪽을 틀고, 비녀를 꽂아 성숙한 여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감을 알리는 의식이다. 남자도 관례(冠禮)를 통해 상투를 틀고 동곳이나 비녀로 고정했다.

금문을 자세히 보면 손이 여자의 머리 쪽으로 들어가 정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소전(小篆)에 이르러 형용어인 머리가 가지런히 다듬어지고, 해서체에서는 머리 위의 짧은 가로획이 나타나는데, 강 선생은 이를 비녀를 뜻하는 기호로 해석한다.〔그림 25〕 '妻' 참조

락에서 일관성이 드러난다.

### □ 동이의 예(禮), 동반자의 탄생

동이 문화권에서는 혼인이 단순한 남녀 결합이 아니라 성인으로 인정받는 통과례였다. 계례에서 여인은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다. 그 순간 그는 아이가 아닌 어른, 사회적 동반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妻'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표지가 아니라, 함께 가정을 이루는 동반자를 맞이하는 의식의 문자였다.

### □ 부호(婦好)의 묘, 존중받은 여인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도 있다. 1976년 은허에서 발굴된 부호(婦好)의 무덤이다. 그녀는 무정왕의 아내였으며, 동시에 뛰어난 장수이자 제사 주관자였다. 무덤에서는 수백 점의 청동기와 옥기, '婦好'라는 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나왔다. 갑골문 점사에는 무정왕이 부호의 병세를 염려하거나 군사를 맡기는 장면이 남아 있다.

이 사례는 당시 여성도 정치와 군사, 종교의 주제로 존중받았음을 보여준다. 오락가락 약탈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 □ 처와 첩의 차이, 핵심은 예(禮)

고대 문헌에 '빙위처(聘爲妻)'와 '분위첩(奔爲妾)'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禮說은 '빙(聘)'을 안부 묻는다, '분(奔)'을 달아나다로 풀지만, 강 선생은 다르게 본다. '빙'은 예를 갖추어 맞이함, 곧 정례 결혼이고, '분'은 예 없이 결합한 비정례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妻)'와 '첩(妾)'의 구분 기준은 경제력이나 신분 차이가 아니라 예의 유무였다. 첩(妾) 자의 갑골 자형에는 무릎 꿇은 여자와 머리에 형틀 같은 표지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죄수나 포로 여성과 연관되었음을 시사한다.〔그림 25〕 참조) 즉 첩은 예가 생략된 강제적 결합의 산물이었다.

### □ 맺으며

결국 '妻'는 약탈의 흔적이 아니라 계례와 혼례를 통한 동반자의 탄생을 상징하는 문자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 '부(婦)'는 살림의 역할, '노(奴)'는 강제와 포로, '첩(妾)'은 예 없는 결합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동이적 전통은 예를 중시했고, 부호의 사례처럼 남녀가 동반자로 존중받는 문화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동이는 약탈혼의 민족'이라는 도식은 지나친 단순화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내'라는 말 속에도 사립은 고대인의 예절과 존중, 동반자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 문자의 기원을 바로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도 하나씩 벗겨낼 수 있다.



□ 육우균  
◇ 교육연합신문 주필

## 전 재 학 의 교 육 칼 럽

# 교사의 성장이 주는 교육적 함의(含意)

“교사의 성장은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모습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성장'이라는 화두는 익숙하지만,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연수 점수를 채우고 새로운 에듀테크 기술을 익히는 것이 성장의 전부인 양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적 의미에서 교사의 성장은 외적인 스펙의 확장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내면을 재구성하는 '존재론적 변화'여야 한다.

파커 J. 파머(Parker J. Palmer)는 그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The Courage to Teach)'에서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내면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설파했다. 즉, 교사가 성장을 멈추는 순간, 교실이라는 생태계는 정체되고 만다.

이 글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 즉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의 교육적 함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무지의 스승'이 건네는 겸손의 연대이다. 교육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는 『무지한 스승(The Ignorant Schoolmaster)』을 통해 혁명적인 교육관을 제시한다. 스승이 모든 것을 알고 제자에게 전수하는 전통적인 '설명 모델'에서 벗어나, 스승 역시 '모름'을 인정하는 용기와 겸손, 탐구의 여정에 나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거울 신경망(Mirror Neurons)과 성장의 전파성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교사의 성장은 아이들에게 강력한

모방의 기제를 제공한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졸라티(Giacomo Rizzolatti)가 발견한 '거울 신경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와 감정까지도 모방한다고 한다. 교사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책을 펼치고, 학생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의 뇌는 '성장의 진수'를 학습할 것이다.

셋째, 관계 속에서의 재탄생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다. 사호 학자인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나와 너(I and Thou)』에서 "인간은 관계를 통해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성장은 아이들이라는 '너'를 만나 교사라는 '나'가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는 교실 속 갈등 상황에서 아이들의 거친 언행에 큰 상처를 입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사상에 머물렀다면 그는 징계와 훈육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의 반항 이면에 숨겨진 결핍과 불안을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 아이'를 대면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심리학 서적을 읽고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서 '회복적 정'을 실천하는 전문가로 성장했다. 아이들은 변화된 교사의 태도에 마음을 열고, 교실은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아이들

의 도전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사가 보여주어야 할 회복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성장은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행군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마주하는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까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 자체'이다.

가르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비워진 그 자리는 아이들이 전해주는 생동감과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시 채워진다. 이것은 비움으로써 다시 채워진다는 진리이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육의 미래이다.

교사의 성장은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모습이다. 이는 교사에게 따르는 학생 지도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어른으로서 감동을 주면서 삶의 의미와 참가치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 중고등 학생들이 연 10년을 넘게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를 굳건하게 지킨 근본 배경이고 핵심이라 믿는다.

오늘도 교실에서 아이들로 인해 흔들리지만 이를 극복하며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를 보낸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신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장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최 윤 용 의 100세 칼 럽

# 잠 못 드는 밤의 이유: 장(腸)과 뇌(腦)를 잇는 불면의 과학

“오늘 밤은 잠들 수 있을까?” 만성 불면증과 수면제의 딜레마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상태를 넘어, 수면의 양이나 질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이 지속되어 일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일찍 깨는 증상이 주 3회 이상, 최소 3개월간 지속될 때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합니다.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신체 질환, 약물 부작용 및 부적절한 수면 위생 등이 꼽힙니다. 현재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수면제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장기 복용 시 약물 의존성, 내성,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장기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잠 못 드는 진짜 이유, 뇌가 아닌

'장(腸)'에 있을 수도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뇌 기능의 상호작용인 '장-뇌축(Gut-Brain Axis)' 경로가 불면증 발생의 중요 병리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은 장내 미생물의 조성 및 대사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균형이 깨지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dysbiosis)'은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SCFA) 등 대사물질은 혈액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신경전달물질 및 뇌의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장 건강이 나빠지면 전신 염증 상태가 유발되고, 이것이 다시 뇌의 수면 조절 시스템을 교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

니다.

### ○ 장내 유익균을 살리고 신경을 달래는 한의 치료의 현대 과학적 효과

현대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장-뇌축 경로를 조절하여 불면증 치료 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에 활용된 한약 처방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에 기록된 '쌍하탕(雙夏湯)'은 최신 연구 기법인 다중오믹스(multi-omics) 분석을 통해 장내 유익균인 Bacteroides와 Akkermansia를 증식시키는 동시에, 로즈마린산(Rosmarinic acid) 등의 유효성분을 통해 수면 박탈로 유도된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대 한의약 임상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여러 활용되는 여러 한약재는

장내 미생물의 핵심 대사물질인 단쇄지방산(SCFA) 농도를 정상화합니다. 이 물질은 혈액-뇌 장벽(BBB)을 통과하여 신경 염증과 스트레스 조절 축을 안정화함으로써 불면을 유발하는 생체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산조인의 주요 성분인 스피노신(Spinosin) 등은 GABA 수용체의 기능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수면 구조를 안정화합니다. 이들은 기존 수면제가 유발하는 내성이나 인지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최신 한의약 연구의 성과입니다.

### ○ 침치료의 경우에도 다양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침은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조절하고 신경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 형태를 변화시켜 만성 불

면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는 침전기자극술(electroacupuncture) 치료가 우울증을 동반한 불면증 환자가 겪는 수면의 질 저하 및 심리 상태 문제를 개선하는 효능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침치료의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에서도 침은 한약처럼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등 인체의 여러 영역에 작용함으로써 불면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습관을 기르는 일상 속 자기관리

건강한 수면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치료와 더불어 생활 습관 교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인지행동치료 원칙 준수: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낮잠을 피하며, 침대에서는 수면 외의 활동(스마트폰 사용 등)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면 환경 최적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며, 취침 전 카페인, 알

코올, 과도한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 장 건강을 고려한 식단: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장-뇌축을 안정화하여 숙면을 돕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큰 부담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의 치료와 올바른 생활 관리를 통해 장과 뇌의 균형을 회복해 활기찬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한 수면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최윤용  
◇ 큰나무한의원 대표원장  
◇ (주)뜸생약 대표이사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윤강 교장

# 부산체육중·고등학교 “메달보다 사람이다”

### 윤강 교장, 기존 학교체육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강조 “운동·학습·인성, 세 가지 모두 놓치지 않는 학교 만들 것”

####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이제 전문체육은 메달을 따기 위한 교육을 넘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2026년, 학교체육이 근본적인 전환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윤강 교장의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육을 넘어서 학생중심·교육중심 체육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윤 교장은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존 체육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 ■ 엘리트 체육,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윤강 교장은 현재 학교체육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성과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동안 기록과 성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메달은 결과일 뿐,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학교 운영 방침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교육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 운동도, 공부도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교장은 “운동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서도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운동이든 학습이든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이는 ‘운동하는 학생’에서 ‘공부하는 선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 메달 이후 학생의 삶까지… 진로교육의 중요성 강조

윤강 교장은 특히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선수로서의 시간은 길지 않다.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산업, 행정 등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는 체육계열 고등학교가 단순히 우수 선수를 양성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학생선수 이후의 삶을 고려한 진로교육을 충실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장은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학술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복잡하게 급변하는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진로교육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향후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미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체육분야에서도 교육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지만, 그동안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비교적 진로선택과 진로계획이 뚜렷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실제 진로교육의 실천이 미흡했다”라고 말한다.

윤 교장은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사실상 체육계열 진로교육이 체육계열학과 진학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학생의 관심과 적성을 반영한 실질적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학생선수 대상으로는 운동중단 또는 중도포기, 은퇴 이후의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 막상 학생선수들을 위한 진로·진학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경우에는 맞춤형 진로교육은 고사하고 훈련과 대회참가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낮고 시간관리 및 활용의 미숙함이 나타난다. 더욱이 어린 시절에 운동을 시작한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지적, 사회적 곤란을 경험한다”라고 말했다.

윤 교장은 학생선수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해서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육



분야의 진로교육은 몇 회차로 진행되는 단발성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학생선수로 등록된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을 중단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진로경로 설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 ■ 부산체육중고등학교 진로교육 운영 방침 수립

부산체육고등학교는 ▲첫째, 체육계열 고등학교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선수, 감독교사, 지도자,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학생선수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성별, 경력별, 학년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생선수 진로·진학 관련 행사 참여, 온라인 우수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진로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선배와의 만남, 학부모 참여 진로박람회, 체육 전문가 강사 초청 특강’ 등을 기획해 실질적인 진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 체육도 과학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경기력 향상

또, 윤강 교장은 체육고등학교로서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고자 한다.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경기력이 아닌,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스포츠 과학 기반 훈련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접근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기력 향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및 유관기관, 지역대학교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한다는 것이다.

#### ■ 훈련의 기초는 안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생선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학생선수 맞춤형 안심공간 구축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훈련은 의미가 없다. 학

생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어떤 성과보다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체육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부상 예방, 심리 지원, 종목별 훈련장 및 기숙사 위험요소 사전 차단, 소방도로 확장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 학교 체육, 지역과 함께 가야 한다

한편,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현실의 균형을 강조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이다. 안전과 관리를 전제해 지역과 공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최근 영도구청과 수영장 주민 개방을 위한 협약을 통해 주·야간 수영장 개방으로 공공 생활체육 시설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소년들로 구성된 월계수 스포츠클럽에 수영, 근대5종, 사격, 체조 종목에 종목별 훈련장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유소년들의 심신발달 및 꿈나무 선수 발굴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 제

시로 평가된다.

#### ■ 부산에서 시작된 변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윤강 교장은 부산체육중·고등학교를 대한민국 체육교육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생 중심, 안전 중심, 미래 지향의 교육을 통해서 부산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 체육교육은 기록과 메달을 넘어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 변화의 시작을 부산체육중·고에서 만들어가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기력을 향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다채롭게 제공해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체육중·고등학교로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발전적 체육교육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명확하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윤 교장의 체육중고등학교 운영 관련 노련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적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윤영 기자 juy@

